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적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32호

Jeff Pippenger
2026-01-20

제32번

베드로를 우리의 증인으로 삼아 요엘서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은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안에 있는 가장 놀라운 표상 가운데 하나이지만, 모두가 그러하지 않은가?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고, 또한 오순절 제삼시에 다락방에 있으며, 이어 같은 날 제구시에 성전에 있다. 예수께서는 제삼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제구시에 숨을 거두셨다. 베드로는 제구시에 가이사라로 부름을 받는다. 그러나 고넬료 이야기에서 그가 부름받은 가이사라는 헤르몬 산 기슭의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니라, 바닷가의 가이사라, 곧 가이사라 마리티마였다.

가이사라 마리티마는 지중해 연안, 현대 텔아비브에서 북쪽으로 약 30-35마일 떨어진 해안 도시로(헤롯 대왕이 웅대한 로마의 항구 도시로 건설함)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하며(15회 언급됨), 신약에서 사람들이 단순히 '가이사라'라고 부를 때 대개 이곳을 가리킨다. 전도자 빌립은 예언하는 네 딸과 함께 그곳에 거주하였다(행 8:40; 21:8). 바울은 그곳에서 2년간 구금되었고,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아그립바 왕 앞에 출두하였다(행 23-26장). 아마도 더 중요하게는, 베드로가 이곳에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설교하였는데—이는 기독교로의 최초의 중대한 이방인 회심이었으며(행 10장), 그리스도께서 많은 이들과 언약을 확증하신 그 한 주간이 끝난 주후 34년에 일어났다.

그가 한 이레 동안 많은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요,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할 것이며, 가증한 것들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마침내 작성된 바가 그 황폐하게 하는 자 위에 쏟아지기까지 하리라. 다니엘 9:27.

가이사라 마리티마는 유대의 로마 행정 수도로 기능했으며, 중요한 이방인 중심지였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다른 도시로서, 북쪽 먼 곳의 헤르몬 산 기슭 가까이에 위치해 있으며(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약 25~30마일), 오늘날의 골란 고원 지역(현대의 바니아스)에 해당한다. 이 도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라로 데려가셨을 때에만 복음서에 언급된다(마태복음 16:13; 마가복음 8:27). 이곳은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유명한 장소이며, 예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신 곳이다(마태복음 16:13-20). 그곳은 그리스 신들, 특히 염소 신 판에게 바쳐진 신전들이 있던 이방 지역이었고, 판의 동굴이 "지옥의 문"이라 불렸으므로, 그곳에서 하신 예수의 선언은 특히 두드러졌다.

두 도시는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하나는 남서부의 번성한 로마 항구 도시이고, 다른 하나는 요단강 발원지 근처의 북부 헬레니즘적·이교적

도시이다. 해안의 도시는 사도행전에서 지배적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북부의 도시는 북음서에서 결정적 순간의 중심에 있다. 바다의 가이사라는 로마—곧 짐승—의 상징이며, 땅의 가이사라는 용의 상징이다. 화이트 자매는 십자가에서 오순절에 이르는 기간을 '오순절기'라고 지칭하며, 그것은 십자가에서 시작하여 오순절에 끝났다.

나는 오순절 날의 사건들이 그 당시보다도 더 큰 권능으로 되풀이될 때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린다.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 그때에는 오순절 때와 같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언어로 자기들에게 전해지는 진리를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으며, 제단에서 취한 타는 숯불로 그들의 입술을 만지시고 그분을 찬양함에 능변하게 하실 수 있다. 수천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 능력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어눌한 혀가 풀리고, 소심한 자들은 진리에 담대히 증언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주께서 당신의 백성이 영혼의 성전을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하고, 늦은 비가 부어질 때 그것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그분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시기를. Review and Herald, 1886년 7월 20일.

엄밀히 말하면 오순절기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일치하는 초실절에서 시작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부활하실 때 구주께서 지니고 가실 피가 없었을 것이다. 그분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생명의 떡이신 그분은 무교절의 날에 안식하지 않으셨을 것이며, 또한 생명의 떡은 초실절에 부활하시기 전에 미리 안식하셔야 했으니, 그리하여 오순절의 날과 절기로 이어지는 오십 일의 기간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께서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증하시려고 오셨을 때, 그 한 이레는 그의 세례 때 시작되었고, 이어 "그 이레의 한가운데," 곧 삼 년 반 후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무교절의 날에 무덤에서 안식하셨으며, 주일에 보리 수확의 초실절로서 부활하심으로, 밀의 첫 열매 절기에 이르는 오십 일의 오순절 기간이 시작되었다. 십자가로부터 그 이레의 끝, 곧 삼 년 반 후에 이르기까지, 그 칠 년의 기간은 가이사라 마리티마의 고넬료로 말미암아 종결되었는데, 그는 서기 34년에 그 이레의 끝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최초의 이방인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확증하시기 위해 오신 그 한 이레는 예언적으로 2,520일이며, 십자가는 '그 이레의 한가운데'이므로, 그것은 세례 후 1,260일이었고 고넬료가 회심하기 1,260일 전이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삼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제구시에 죽으셨다. 이는 오순절 시기의 시작이었고, 그 끝에서는(예수께서는 항상 시작으로 끝을 예시하셨으므로)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다락방에서 제삼시에 요엘서에 관한 첫 설교를 하였다. 이어 베드로는 성전에서 제구시에 요엘서에 관한 두 번째 설교를 하였다. 분명히 제삼시와 제구시는 오순절 시기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알파와 오메가의 상징이다.

줄에 줄을 더하듯, 이 두 사건의 제삼시와 제구시를 서로 정렬해 보면, 그 여섯 시간이 양 사건 모두에서 분리를 증언하는 예언적 기간임을 발견한다. 그리스도는 생명에서 죽음으로, 다시 생명으로 나아가신다. 그는 땅에서 하늘로, 다시 땅으로 가신다. 베드로는

성전 밖에 있다가 성전 안에 있다. 물론 제삼시와 제구시를 평행하게 맞춘 다른 정렬들도 있지만, 우리는 먼저 베드로와 고넬료, 그리고 바닷가의 가이사랴를 고려해야 한다.

여섯 시각으로 표상된 예언적 구분들과 마찬가지로, 천사가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고 지시하도록 파견되었을 때는 제구시였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하여 그의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에게 구제를 많이 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가 낮 제구시쯤 환상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 들어와 "고넬료야" 하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그를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 기도와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념으로 상달되었느니라. 이제 사람들을 오히려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사도행전 10:1-5.

천사의 도래는 전갈을 상징하고 또한 이정표를 상징하며, 천사는 "네 기도와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념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함으로써 그것이 이정표임을 확증한다. 한 주간의 결말에 해당하는 이정표는 고넬료가 나흘 동안 금식한 뒤 아홉째 시에 베드로를 청하도록 사람을 보낸 사건이며, 그것은 "기념"이라 불리니 곧 이정표이다. "백부장"인 고넬료는 백 명의 병사를 거느린 지휘관이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을 때에는 어떤 시각에 대한 언급도 없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셨을 때 그 도시의 이름이었다. 파니움 전투에서 성취되었고 미국의 일요일법으로 이어지는 전쟁을 예표하는 다니엘 11장 13-15절의 역사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파니움이라 불렸다.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 곧 파니움에 있을 때 13-15절에 있다.

파니움 전투가 다니엘서 11장 13-15절의 성취였으며, 그 구절들과 파니움 전투의 역사가 미합중국의 일요일 법령으로 이어지는 전쟁을 지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 바로 이것이 "line upon line" 방법론이 작동하도록 고안된 방식 그대로이다. 그 방법론을 적용하려면 가이사랴 빌립보와 파니움은 반드시 상응해야 한다. 이 진리를 다루는 예언의 주된 규칙은 "고대의 각 선지자는 자신이 살던 시대보다 우리 시대를 더 많이 말하였다"는 것이다. 바울은 또 "선지자들의 영은 선지자들에게 복종한다"고 덧붙이므로, 그들 모두가 말세를 지목할 뿐 아니라 서로 일치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속에서 파니움이라는 명칭으로, 이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명칭으로 지칭되어 있음이 확인된다면, 그 둘은 말세에 모두 적용되어야 하며, 동일한 도시이므로 서로 정합되어야 한다.

이 논리와 더불어, 다소 다르기는 하나, 가이사랴 빌립보와 가이사랴 마리티마가 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갔으나, 가이사랴 마리티마로는 성령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다. 그럼에도 두 가이사랴 모두에서 언약의 주된 인물은 베드로이다. 이 맥락에서 놀라운 것은, 고넬료가 제구시에 천사의 방문을 받아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점이다. 가이사랴에서의 베드로는 예언적 표징이지만, 두 가이사랴는 분명히 서로 다르다. 하나는 바닷가의 가이사랴이고, 다른 하나는 땅 위의 가이사랴이다. 바닷가의 가이사랴는 이방인들과 연관되며, 고넬료는 서기

34년에 언약의 한 이레가 정확히 끝나는 때에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였다. 바닷가의 가이사라는 제구시에 해당하며, 오순절에 성전에서의 베드로, 그리고 제구시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죽음과 상응한다.

내륙의 가이사라, 곧 가이사라 빌립보는 제삼 시이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시작은 가이사라 빌립보, 즉 제삼 시이며, 끝은 가이사라 마리티마, 즉 제구 시이다. 여섯 시간의 기간에서 빌립보는 알파요, 마리티마는 오메가이다. 제구 시의 오메가는 언약의 주간의 한가운데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고, 오순절에 성전에 있던 베드로 또한 제구 시였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른 것은 일요일 법령을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상응하며, 또한 다시금 일요일 법령을 예표하는 오순절 성전에서의 베드로와도 상응한다. 첫 이방인 회심자인 고넬로는 일요일 법령의 때에 등장하는 첫 열한째 시의 일꾼을 대표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제삼시와 베드로가 다락방에 있었던 제삼시는 반드시, 그리고 오직 가이사라 빌립보를 상징한다. 오순절 날 베드로가 있었던 그 다락방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부활, 승천, 그리고 강림 이후에 나타나셨던 바로 그 동일한 다락방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그 다락방에 오셨고, 그로부터 오십 일 후 오순절 날에, 베드로는 같은 다락방에서 요엘서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십자가와 오순절의 다락방과 상응하는 제3시이다. 십자가는 흠어짐의 상징이며, 다락방은 연합의 상징이다. 이는 가이사라 빌립보가 일요일 법령 직전에, 한 부류는 흠어지고 다른 부류는 모이는 그 지점임을 가리킨다. 파니움 전투의 역사가 반복되기 시작할 때,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은 영구히 분리될 것이며, 그 분리는 일요일 법령의 접근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둘러싸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가오는 일요일 법령에 관하여 가르치기 시작하신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다. 그때 베드로는 그 기별을 반대하였고, 이로써 단 아홉 절 사이에서, 베드로는 십자가의 기별, 곧 일요일 법령에 의해 인침받는 자들과 흠어지는 자들을 대표한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는 혈육이 이것을 네게 계시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것임이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되 아무에게도 자기가 예수, 곧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보이기 시작하시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를 붙들고 책망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그가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걸림이 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15-23.

제삼시의 십자가형과 베드로의 다락방 메시지는,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교회로 정의되는 전투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로 이행하는 예언적 전환을 정합시킨다. 승리하는 교회는 오순절의 첫 열매 밀 제물이며, 곧 일요법령이다. 가라지와 밀이 성숙에 이르면, 천사들이 그 두 부류를 분리한다. 밀과 가라지가 결실에 이르게 되는 것은 9/11에 흠뿌리듯 내리기 시작한 비 때문이다.

여섯 시간의 기간은 엑서터 야영 집회에서 1844년 10월 22일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개선 입성, 그리고 다윗 왕이 언약궤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건을 표상한다. 제구시는 또한 저녁 제사의 때로, 오후 3시경이다.

이제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일 년 된 어린 양 둘을 날마다 끊임없이 드릴지니라.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다른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니라. 출애굽기 29:38, 39.

“even”로 번역된 단어는 때때로 “between the evenings”로도 표현된다. “between the evenings”는 제3시와 제9시 사이의 6시간 기간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주간은 십자가에서의 6시간 기간을 표상하며, 이는 오순절의 6시간 기간의 알파가 된다. 언약의 주간 안에는 거룩한 주간의 예언뿐 아니라 오순절 절기의 상징들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6시간의 기간을 지시하는 두 증인이 있다. 그리고 바로 그 동일한 예언적 주간의 결말에, 베드로는 제9시에 가이사랴로 부름을 받는다. 거룩한 주간의 동일한 예언적 구조 안에서 세 번의 제9시가 존재한다는 사실—그 가운데 두 번은 6시간 기간의 오메가적 결말이며, 그 6시간은 또한 아침과 저녁 제사 사이의 기간이기도 했다—은 예언적 필연으로, 고넬료의 제9시에 종결되는 기간의 알파로서 제3시가 존재해야 함을 요구한다.

베드로가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가이사랴 두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제삼시로 지목한다. 그 여섯 시간의 기간은 가이사랴로 시작하여 가이사랴로 끝난다. 이는 끝이 시작에 의해 예시되기 때문이다.

유월절 어린양은 저녁에 잡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는 제구시, 곧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때였다.

너희는 그것을 이 달 열나흘날까지 간수할지니,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해 질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출애굽기 12:6.

기도의 시각은 또한 제구시인데, 이는 그 시각이 저녁 제사의 때였기 때문이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드러지게 하소서, 또한 내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시편 141편 2절.

저녁 제사가 기도의 시각이라는 사실에 부합하여, 에스라는 저녁 제사 때 기도하고 있으니, 곧 베드로가 성전에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며, 고넬료가 사자를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제구시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저녁 제사 때에 내가 나의 근심 중에서 일어났고, 옷과 겹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어, 여호와 내 하나님께 손을 펼쳤다. 에스라 9:5.

그의 기도에서 에스라는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하여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이 이방 아내들과 통혼하였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다.

에스라가 기도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전 앞에서 울며 엎드렸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로 이루어진 심히 큰 회중이 그에게 모여들었으니, 백성이 심히 통곡하였음이라. 그때 엘람 자손 중 하나인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백성 중에서 이방 아내들을 취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이 일에 관하여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그 모든 아내와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내보내되, 내 주의 조언과 우리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자들의 조언을 따라, 그 일이 율법대로 이루어지게 합시다. 일어나소서. 이 일은 당신의 소관이니, 우리도 당신과 함께하리이다. 담대히 하시고 행하소서.

그때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의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대로 행할 것을 맹세하게 하였고, 그들이 맹세하였더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르러 그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애통하였음이라.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에게 공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을 명하고, 또 방백들과 장로들의 의논에 따라 누구든지 삼일 내에 오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그 자신도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회중에서 분리될 것이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남자들이 삼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였으니, 그때는 아홉째 달 그 달 이십 일이었고, 온 백성이 이 일 때문에 또 큰비 때문에 떨며 하나님의 집 앞 광장에 앉았더라. 에스라 10:1-9.

14만 4천의 언약은 이방 아내를 취한 자들로부터의 분리로 표상된다. 이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분리이며, 제구시에 일어나는데, 그 제구시는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오순절 날 성전에서의 베드로, 그리고 해변의 가이사랴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를 가리킨다. 에스라의 분리는 또한 말라기 3장에서 언약의 사자가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는 일이다. 말라기의 그 정결케 함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두 차례 성전 정결을 예시한다.

예수께서는 성전을 세상의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정결하게 하심으로, 죄의 더러움—곧 영혼을 부패시키는 세속적 욕망과 이기적 정욕과 악한 습관들—으로부터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셨다. 말라기 3:1-3 인용. 시대의 소망, 161쪽.

에스라와 언약에 들어가는 자들은 "일어나라"는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는 반역자들이 삼십팔 년에 걸쳐 모두 죽은 뒤에 일어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고대 이스라엘이 열 차례의 시험에서 실패하는 데에는 이 년이 소요되었고, 삼십팔 년이 지난 뒤에는 반역자들이 모두 죽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이르되 "이제 일어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였고,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다. 우리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의 기간은 삼십팔 년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전쟁할 만한 자들의 그 세대가 진 중에서 모두 소멸되기까지였다. 신명기 2:13, 14.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는 삼십팔 년 동안 그와 같은 상태에 있던 병자를 고치셨고, 그를 고치실 때에 그에게 '일어나라'고 이르셨다.

정한 때에 한 천사가 그 연못으로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였고, 물이 동한 후에 맨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음을 얻었다. 그곳에 삼십팔 년 동안 병을 앓아 온 어떤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랜 세월 그 상태에 있음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 병자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나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곧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날은 안식일이더라. 요한복음 5:4-9.

에스라가 십사만 사천의 언약을 예증할 때, 백성들은 "일어나야" 했다. 1838년에 저명한 밀러주의 설교자 조시아 리치가 1840년경 오스만 패권의 종결을 예언하였고, 밀러주의 기별이 일어났으며, 1840년 8월 11일의 정확한 성취로 권능을 입었다. 승리하는 교회의 드높임에는 언약이 확립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는 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 에스라가 이방 아내들을 분리시킨 일에서 우리는 말라기의 레위인 정결과 또한 그리스도의 두 차례 성전 정결을 발견하며, 각 경우는 알곡과 가라지의 분리를 지목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사만 사천의 마음에서 죄를 영원히 제거하실 때 성취된다. 그리스도의 제구시와 베드로의 두 차례 제구시, 그리고 에스라의 정결을 위한 기도는 늦은 비가 한량없이 부어질 때인 일요일법과 상응한다.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은 저녁 제물을 드리는 때, 곧 제구시에 자신의 간구들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

참으로 내가 기도 중에 말하고 있을 때, 처음에 환상 가운데 내가 보았던 그 사람, 곧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도록 하심을 입어, 저녁 제물 드릴 즈음에 나를 만졌다. 다니엘 9:21.

우리는 시날의 큰 강들 곁에서 다니엘에게 주어진 환상들이 이제 성취의 과정에 있으며, 그 예언들이 주어졌을 당시의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 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빛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위해 주어진 것이었다. 시날의 큰 강들인 올라와 히데겔 강가에서 그가 본 환상들은 이제 성취되어 가고 있으며, 예언된 모든 사건들은 머지않아 성취될 것이다.

"다니엘의 예언이 주어졌을 당시 유대 민족의 정황을 숙고하라." Testimonies to Ministers, 113.

히데겔 강과 올라이 강과 연관된 환상들의 빛은 다니엘서 제11장의 마지막 여섯 장을 대표한다. 올라이 강으로 대표되는 제9장에서, 다니엘은 제7장, 제8장, 제9장에 관한 빛을 받는다. 히데겔 강으로 대표되는 제10장에서, 다니엘은 제10장, 제11장, 제12장에 대한 빛을 부여받는다. 예언적 정보는 그 장들 안에 제시된 예언적 사건들에 의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 의해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그 예언들이 주어진 당시 유대 민족의

정황을 우리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고찰들을 말세에 가져와 다른 선지자의 증언들과 정합시켜야 한다. 이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을 뿐 아니라 가이사랴 마리티마에도 있는 것과 같이, 다니엘은 9장에서 제구시에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 10장에서는 이십이일에 방문을 받는다는 뜻이다. 말세를 위한 울래 강과 히데겔 강의 빛은 이십이일의 제구시에 다니엘에게 봉함이 풀려 드러난다. 그 빛은 일요일 법령 때 한량없이 부어지는 늦은비의 부어주심을 상징한다.

다니엘의 증언은 제구시에 완전히 개시되는데, 이는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칠' 바의 외적 역사와 내적 역사를 모두 규명하기 때문이다. 그 빛이 선포될 때, 고넬료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이 사자를 보내어 십사만 사천을 청할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은 일요일 준수 강제령에 의해 살해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떠나셨고 유대인의 빈 집으로 지목하셨던 성전에 베드로가 기별을 전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또한 산헤드린에게 말씀을 전하고, 한편 에스라는 분리를 위해 탄원하며, 다니엘은 금식하며 빛을 구하여 기도한다. 오순절의 제구시,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의 제구시,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렀을 때의 제구시, 그리고 저녁 제사는 모두 갈멜산의 엘리야와 상응한다.

여섯 시간의 기간은 일요일 법령에서 끝나는 기간을 표상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그 시작은 그 끝과 직접 연결된 사건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아침과 저녁의 제사가 그러했던 것과 같다. 베드로의 경우, 그 여섯 시간의 기간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해변의 가이사랴까지이다. 오순절에서는 다락방에서 성전에 이르기까지였다. 길의 시작에 세워진 밝은 빛에 해당하는 기간은 한밤중의 외침이며, 그 기간은 일요일 법령에까지 이른다. 두 저녁 사이의 여섯 시간은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개선 입성을 표상하며, 그 개선 입성은 다시 1844년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엑시터 야영집회에서 비롯되어 1844년 10월 22일에 결말에 이른 기별 선포의 기간을 표상하였다. 엑시터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해당하며, 해변의 가이사랴는 1844년 10월 22일에 해당한다. 시작과 종결이 모두 가이사랴로 표시된다.

승리의 입성은 시작과 끝에 각각 하나의 논쟁으로 특징지어진다. 엑시터에서의 논쟁은 그 집회장 부지의 워터타운 천막에서 벌어지고 있던 거짓 경배로 대표되었다. 그 두 천막은 두 가지 기별을 대표하였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시어 방금 풀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은 선포되고 있던 그 기별을 문제 삼았다. 첫 번째와 마지막 논쟁은 그 기간의 알파와 오메가를 규정한다. 엑시터에서 워터타운의 부류는 기름이 없는 처녀들의 한 부류를 대표하였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혔다. 그 기간의 끝에서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닫혔으며, 이로써 그 기간에 알파와 오메가가 부여되었다. 그 알파와 오메가는 승리의 입성의 두 논쟁과 상응하며, 베드로와 함께한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까지와도 상응한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바요나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는데, 그 대목에서 그는 영감의 대변자로 칭찬을 받다가 십자가의 기별을 대적한 까닭에 사탄으로 정죄된다. 베드로는 침례와 십자가의 기별, 곧 9/11과 일요일 법령의 기별에 의해 분리되는 두 부류의 상징이다.

"바리새인과 세리로 대표되는 각 부류를 위해 사도 베드로의 생애 속에는 교훈이 있다. 제자 생활의 초기에 베드로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스스로의 평가로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여겼다.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시기 전야에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시기를, '너희는 다 이 밤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리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선언하였다. '모두가 실족할지라도 나는 아니하겠나이다.' 마가복음 14:27, 29. 베드로는 자신이 처한 위험을 알지 못했다. 자기 신뢰가 그를 잘못 이끌었다. 그는 자신이 유혹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시험이 닥치자 그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그의 주님을 부인하였다." 그리스도의 실물 교훈, 152.

제구시, 곧 저녁 제사 때에,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불이 내려 제물을 소멸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갈멜 산에서는 두 부류가 상징되는데, 하나는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부류이며, 다른 하나는 이후에 죽임을 당하는 바알의 선지자들로 대표되는 부류이다.

저녁 제사를 드리는 때에 이르러 엘리야 선지자가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며, 오늘 이 날에 주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심과 내가 주의 종임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음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이 백성으로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셨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티끌을 소멸하고, 도랑에 있던 물까지도 활아 없었다.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하였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잡되 그들 중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니, 이에 그들을 붙잡으며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열왕기상 18:36-40.

제구시는 저녁 제사가 들려지는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때, 베드로가 저를 고친 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기별을 전한 때, 다니엘이 예언의 빛을 받은 때, 엘리야의 기도가 불로 응답된 때이며, 또한 에스라가 굶은 베풀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라오디게아에서 빌라델비아로, 곧 투쟁하는 교회에서 승리하는 교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기도하던 때이다. 제구시는 희생의 때요, 응답받는 기도의 때요, 하늘이 땅과 맞닿는 때요, 심판과 자비 사이를 잇는 다리이기에 그리스도께서 제구시에 죽으셨다. 이는 희생의 제구시가 어둠에 앉아 있던 자들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니엘서가 일요일 법령 때에 완전히 열릴 때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사사기 6장 21절에 기록된 기드온의 제물 장면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자기 지팡이를 기드온이 바친 고기와 무교병 제물에 대었고, 바위에서 불이 솟아올라 그것을 온전히 사르었다. 그 불은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받아들이셨음을 확증하였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당신이 나와 말씀하심을 보여 주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당신께로 돌아와 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당신 앞에 진설하기까지, 청하건대 여기에서 떠나지 마옵소서. 그가 이르되, 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내가 머물리라. 기드온이 들어가 염소 새끼 하나를 마련하고, 고운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는 광주리에 담고, 국은 솥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는 그에게로 가지고 나와 드렸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그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반석 위에 놓고, 그 국을 쏟으라 하니, 그가 그대로 하니라. 이에 여호와와 사자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그 고기와 무교병을 만지매, 반석에서 불이 올라와 그 고기와 무교병을 사르니라. 그때에 여호와와 사자가 그의 눈앞에서 떠나가니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와 사자인 줄을 깨닫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와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사사기 6:17-22.

그 장의 첫 절에서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고, 기드온은 그 주장을 확증할 표징을 구하였다. 이어서 기드온은 천사에게 지체해 달라고 청하였고, 예언에서 지체하는 그 천사는 둘째 천사이다. 지체 기간이 끝난 후, 기드온은 제물을 드렸고 불이 그 제물을 삼켰다. 엘리야의 경우가 저녁 제사의 때였으므로, 기드온은 제구시에 있다. 그리고 제구시는 오순절의 불의 혀들이 일치하는 때, 곧 일요일 법령이다. 기드온은 주를 대면하여 보는 부류를 대표하는데, 이는 다니엘 십장에서 일어난 바와 같다. 기드온이 불이 제물을 삼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대면하여 뵈 분이 주님이셨으며 그 주님과 교통해 왔음을 깨달았다.

기드온은 불의 기적이 그 표징을 확증할 때 이 현실을 깨달았다. 그 표징은 하나님의 용사 기드온과, 모두 손에 하박국의 삼백 개의 판을 들고 있던 삼백 명의 제사장으로서 이루어진 군대였다. 그 표징, 곧 기치는 기드온 자신이며, 또한 삼백 명의 군대인데, 이는 에스겔서 37장에서 일어서는 그 강한 군대이기도 하다.

레위기 9:23, 24에서 회막이 봉헌될 때,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린 후,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의 번제와 그 기름을 사르니, 백성은 경외하여 소리 지르며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이는 반드시 조목조목 엘리야의 불과 부합해야 한다.

일요일 법령 때 드러지는 알곡과 가라지의 분리를 위한 에스라의 제구시 기도는, 전투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로 변모할 때 성취된다. 이것은 또한 기드온의 불과 조응해야 한다. 칠 일간의 위임식 후 팔일째 되는 날 드러진 아론의 첫 제사 위에 임한 소멸하는 불은, 그날에 다시 임하여 아론의 악한 두 아들을 삼켰다. 일요일 법령 때, 제구시에 성령께서 한량없이 부어지실 때, 두 부류의 제사장들 사이에 분리가 있을 것이며, 승리하는 교회는 이기고 또 이기려 나아가는 에베소의 흰 말로 표상된 사역을 시작할 것이다. 승리하는 교회의 기름부음은 솔로몬의 성전에서 두 번째 증언을 얻는다.

역대하 7:1-3에 따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의 기도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으므로 백성들은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선포하였다. 일요일 법령 때, 스가랴와 이사야에 따르면, 승리하는 교회는 면류관과 기로서 모든 산들 위에 높이 들려진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때 불이 내려왔을 때, 성전은 여호와와 영광으로 충만하였는데, 이는 일곱째 나팔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그 사역을 마쳤고 이제 그 동일한 사역을 열한째 시각의 일꾼들 가운데서도 곧 마치려 함을 상징한다. 일곱째 나팔은 속죄, 곧 예수께서 영광의 나라를 들어 올리실 때 일어나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상징한다. 모세의 회막과 솔로몬의 성전에 내려온 그 불은, 다윗에게 그러하였던 것처럼, 아론의 아들에게도

심판의 불이었다.

다윗의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임한 재앙의 때에, 역대상 21장 26절의 아라우나/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드린 다윗의 제사는 제단 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응답을 받았고, 이는 받아들여졌음을 표징하며 재앙을 그치게 하였다. 라오디게아의 재앙은, 인간의 힘과 지혜에 대한 그분의 의존이라는 재앙을 그치게 하도록 불이 다윗의 제사 위에 내려올 때 끝난다. 속죄가 성취되고 교회가 기치로 높이 들려질 때, 인간에서 신적 인간으로의 전환이 표징된다. 그때, 솔로몬의 성전의 경우와 같이, 신성과 인성이 결합됨에 따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였다.

다음 글에서 제삼시와 제구시로 표상되는 한밤중의 외침의 시기에 대한 우리의 고찰을 계속하겠다.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어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와 더불어 말하고 있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게 하소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보라,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보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 환상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7:1-9.